KMI 인포그래픽

발간년월 2020년 9월(통권 제 28호) **발행인** 장영태
자료문의 종합정책동향연구본부 경제산업·통계분석실
TEL 051-797-4800 **홈페이지** www.kmi.re.kr

추석 차례상에는 어떤 수산물들이 올라 갈까요 ?

추석에 조상을 기리기 위해 지내는 차례는 집안의 중요한 행사로써 집안과 지방마다 지내는 방법이 다양하다. 지역별 추석 차례상에 올라가는 수산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난 10년간 주요 수산물의 생산, 가격, 수출입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秋夕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 秋夕

서울·경기

- 예로부터 바다와 멀었던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말린 생선을 주로 차례상에 올림
- 특히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통북어는 필수


통북어


참조기


굴비


가자미

강원도


명태전


가자미


문어

- 바다 근처인 동해에서는 대표적으로 가자미, 명태, 문어, 대구를 이용

* 특이하게도 명태를 찐 후, 그 위에 살짝 데친 문어를 펴 올림

충청도

- 우럭포는 서산, 태안, 홍성 등 서해와 가까운 지역의 대표 차례음식
- 경상도와 인접한 지역에는 대구포, 상어포, 가오리포, 말린 오징어 등을 활용


우럭포


대구포


말린 오징어


서대

경상북도


돔배기(상어고기)


문어

- 상어고기를 토막내어 소금에 절여 숙성시킨 돔배기와 통째로 삶은 문어를 이용

경상남도


가자미전


방어


참돔

- 경상남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생선의 비중이 커, 조기, 민어, 방어, 도미, 가자미 등의 다양한 생선을 올림

* 홍합, 소라, 전복, 문어, 새우 등을 이용해 해물 꼬치 산적을 만듬

전라도

- 전라도를 대표하는 음식인 홍어는 차례상에 반드시 올라가는 생선
- 남도 지역에서는 홍어찜, 홍어회를 만들며, 북도 지역에서는 홍어 전을 올림


병어

홍어회


꼬막

제주도


옥돔


전복


오분자기

- 옥돔은 제주도 남부해역에서만 잡히는 특산 어종으로 고급 어종으로 취급
- 전복과 오분자기 등도 같이 차례상에 올리는 것이 특징

차례상에 올라가면 안되는 생선

* 비늘이 없는 생선(메기, 가물치 등)
* '치'가 들어가는 생선 (꽁치, 갈치, 삼치 등)
* 용을 상징하는 장어, 성스러운 영물로 여기는 잉어 등도 불가



• **추석 16대 주요 성수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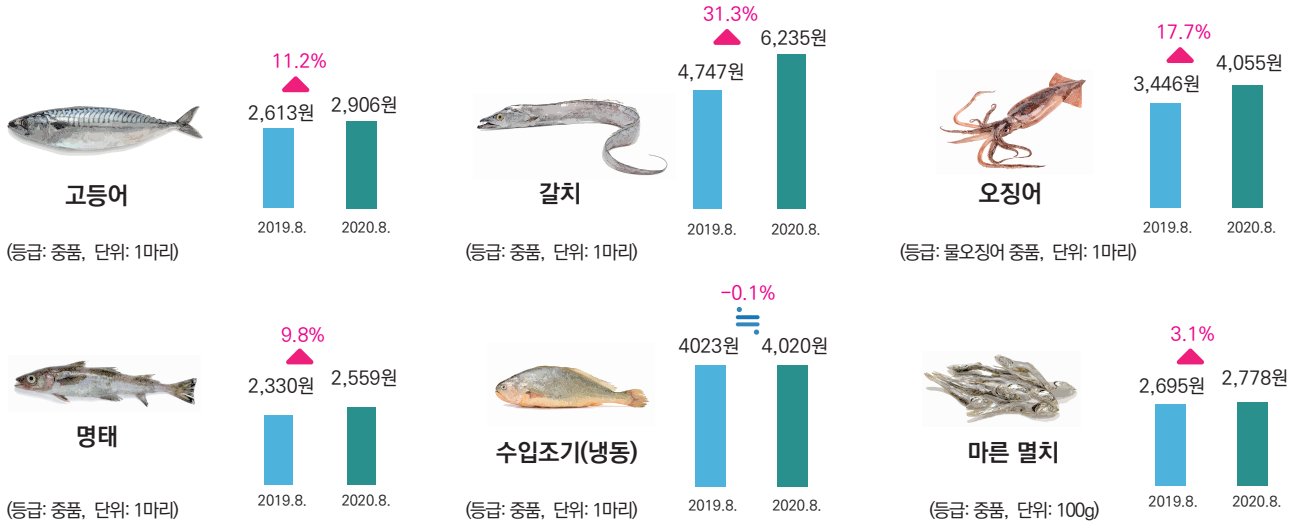
– 추석 16대 주요 성수품은 배추, 무, 사과 배 등 농산물 4종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축산품 4종, 제수에 빠지지 않는 밤과 대추 등 임산물 2종 그리고 명태, 오징어, 갈치, 고등어, 참조기, 마른 멸치 등 수산물 6종 등이 포함



• **추석 차례상 수산물, 작년 동월 대비 크게 올라**

– 작년 동월 대비 가장 크게 오른 수산물은 갈치로 31.3% 상승, 그 다음으로 오징어 17.7%, 고등어(생선) 11.2% 순

– 이는 연이은 장마와 태풍이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자료: 농수산물유통정보(KAM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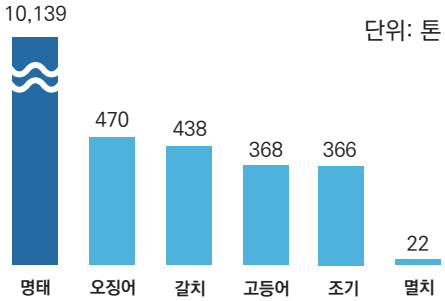
•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는 비축 수산물 11,803톤을 방출, 추석맞이 수산물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실시**

–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9.7(월)부터 9.29(화)까지 23일간 정부 비축 수산물 11,803톤을 방출

–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10,139톤, 오징어 470톤, 갈치 438톤, 고등어 368톤, 참조기 366톤, 마른 멸치 22톤

–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철수산물을 대상으로 9월 4일(금)부터 9월 30일(수)까지 '대한민국 찐 수산대전'을 개최

– 할인행사는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수산유통 창업기업,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금액의 20%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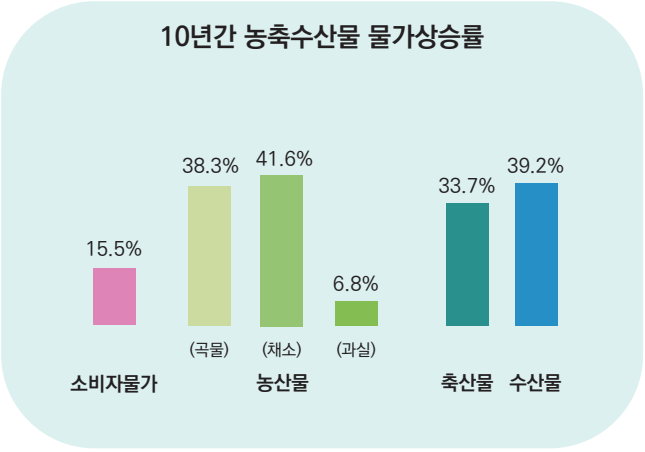
자료: 해양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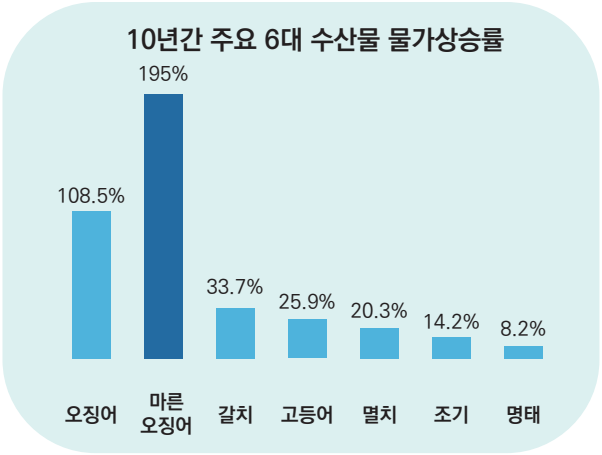


–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올해 추석에는 명절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

• **10년 전 대비 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

- 10년 전인 2010년 추석 기간과 비교하여 2020년 주요 성수품들의 가격은 곡물 38.3%, 채소 41.6%, 과실 6.8%, 축산물 33.7%, 수산물 39.2%가 올라 동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인 15.5%를 대부분 크게 상회
- 수산물 품종별로는 오징어가 108.5%, 마른오징어 195.0%, 갈치 33.7%, 고등어 25.9%, 멸치 20.3%, 조기 14.2%, 명태 8.2%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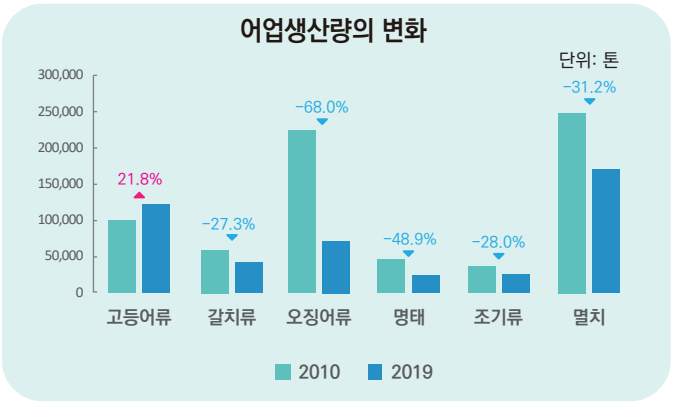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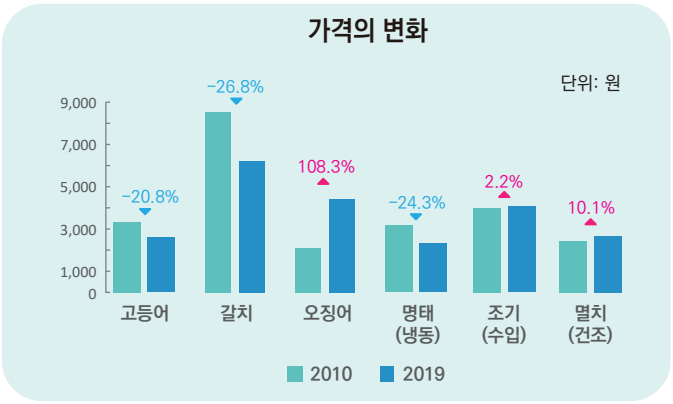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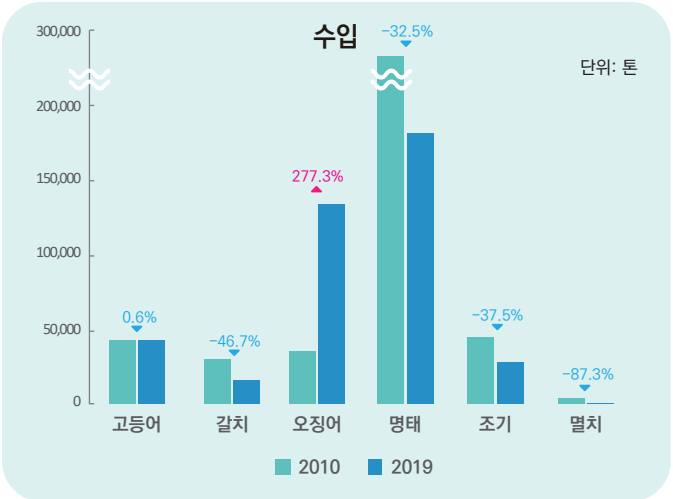
참고: 물가상승률은 2010년 8월 대비 2020년 8월 품목별 물가지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 참고하여 KMI 재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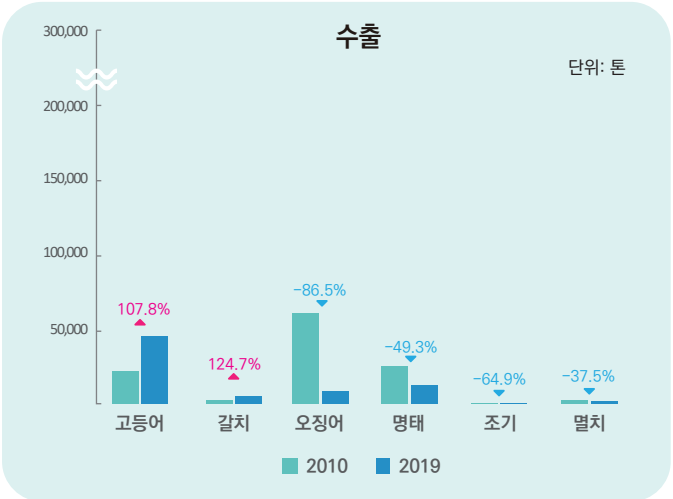
• **10년간의 주요 수산물의 생산량, 가격, 수·출입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

- 고령화, 자원감소, 어선노후 등으로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주요 품종 중 고등어를 제외한 갈치, 오징어, 명태, 조기, 멸치 등의 생산량이 모두 급감함
- 특히 한때 '국민생선'으로 사랑받았던 명태는 2000년대 이후 해수 온도 상승과 남획으로 한반도 주변 바다에서 자취를 감췄으며, 현재는 수입과 일부 원양어업에 의존 중임
- 오징어도 국내 생산 부족에 따라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가격이 10년 만에 2배가 넘게 증가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 해양수산부 수산정포포털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Copyright 2020 kmi.re.kr KMI인포그래픽 All Rights Reserved.